

CSU GLOCAL

LETTER



2026
FEBRUARY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2. 이달의 글로컬 소식
3.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4. 언론이 주목한 글로컬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글로컬대학추진단

목 차

● 1. We'll 조선대학교 비전 한눈에 보기

● 2. 이달의 글로벌 소식

- 06 세 개의 물결, 하나의 미래로 '2025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
- 08 지역과 함께, 웰에이징 '1st G-RISE FESTA'

● 3.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 10 정주·취업, 한눈에 담다 '지역 정주취업을 관리 대시보드 구현'
- 12 지역기업과 함께 만드는 웰에이징 'CSU 웰에이징 Glo-Biz Club 결성식'
- 13 시니어 웰에이징 예술프로그램 '미술산책' '지역-대학 상생의 장, CSU 도시캠퍼스'

● 4. 언론이 주목한 글로벌 조선대학교

- 14 조선대병원, 임상연구정보시스템(CDW) 구축, 활용 폭 확대
조선대-SD바이오센서, 웰에이징 선도 위해 맞손
- 15 완도군, 해조류 산업 구조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전환 집중
조선대학교, 박철우 한국공학대 부총장 초청 특강 성료
- 16 조선대, 디지털 뇌파지도 구축 본격화로 웰에이징 특성화 가속
조선대, 베트남 대학들과 웰에이징 협력 네트워크 확대
- 17 제9회 치매신경과학포럼 개최, 혈액진단·치료·AI 성과 공유
조선대-광주경총, 지역기업 HR 협업 세미나 통한 정주형 취업 선순환 추진

We'll 조선대학교

vision 비전 한눈에 보기



배경

초고령화, 저성장 위기



2045년 한국 고령인구
2천만명 돌파 예상



2050년 한국경제성장률
OECD 최하위 예상 (0%대)



광주·전남
고령인구 1위

3대 특성화 전략

초고령화의 위기를 新경제성장의 기회로!

매일경제 "실버 경제를 우리나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만들겠다" 2025년 2월 10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 10 대 업 골

» 글로벌 실버 경제 규모는 2022년 1조9000억달러에서 올해 3조2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경제 완화, 생태계 지원에 나선 학계, 연구계 등 세계에서 주 '위로' '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 고령화는 놓쳐서는 안될 블루오션. 강한 제조업, IT 기반으로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만들겠다



웰에이징 산업!?

기존의 고령층 돌봄과 요양 중심의 전통적 고령친화산업을 넘어서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이 결합되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형 제품 및 서비스

추진과제

전략 A



웰에이징 전방위 융합인재 양성

A1. 거버넌스 혁신

「We'll 조선대」를 통한
국내 최초 웰에이징
대학 출범

A2. 학사구조 혁신

웰에이징 3대
특성화 중심
학사구조 대전환

A3. 교육과정 혁신

웰에이징 산업
선도형
융합 혁신인재 양성

목표

웰에이징 특화 인재 10,000명 양성

전략 B



기업이 찾아오는 웰에이징 산업생태계 조성

B1. 연구 혁신

R&D-교육-기업지원
통합형 「웰에이징
기술융합원」 신설

B2. 산학협력 혁신

데이터 기반 초고속
테스트베드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B3. 지역상생 혁신

광주-전남
특구 기반
웰에이징 밸리 구축

목표

기업유치 및 창업 200개

전략 C



웰에이징 클러스터 글로벌 확산

C1. 글로벌 인재유치

아시아 거점 기반
웰에이징 글로벌
실무인재 양성

C2. 글로벌연구및교육확산

차세대 연구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

C3. 글로벌 가치창출

글로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글로벌 가치창출
체계 완성

목표

글로벌 인재 5,000명 양성



이달의

글로벌 소식

세 개의 물결, 하나의 미래로 2025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



▲ 2025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 현장 사진

첫 ‘성과포럼’ 개최,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 한자리에

조선대학교가 2026년 2월 9~10일 전남 진도 쏠비치에서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을 처음 개최해 **글로벌대학사업·RISE·대학혁신지원사업 등 핵심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연계·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성 총장 등 교내외 관계자와 교직원 약 210명이 참석했으며, 기초강연과 사업단별 성과 발표, 우수 참여자 시상,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대학은 ‘세 개의 물결, 하나의 미래’를 제시하며 사업을 ‘공동 과제’로 통합·융합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학 혁신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계 가능한 ‘공동 과제’로 확장

행사는 정훈탁 장학관의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고등교육혁신’을 주제로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김선중 글로벌대학추진단장·신종호 RISE사업단장·강성호 대학혁신사업지원부단장 등 각 사업 책임자들이 추진 현황과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이후 우수 참여자 시상과 분야별 분임토의로 이어졌다. 각 사업단은 학생 중심 교육 혁신, 지역 협력 성과, 제도 정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개별 사업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공동의 과제’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연결 지점을 넓혔다**는 점을 성과로 강조했다.



▲ 참석자들에게 격려사를 전하는 김춘성 총장

성과 통합·융합으로 지역 동반성장 모델 추진

김춘성 총장은 '세 개의 물결, 하나의 미래'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사업 유치와 추진 노력을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통합·융합해 조선대의 미래 전략을 함께 그려**가자고 당부했다. 조선대는 앞으로도 세 사업의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학 혁신 모델을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간 연계를 통한 글로벌 확산





교육영역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우수 성과 프로그램 확산
무전공 입학 확대
학생전공자유선택제 강화
웰에이징 융합 기초역량 구축



연구·지산학 영역

“캠퍼스가 곧 지역산업의 테스트베드”



기업지원·취창업 연계
지역 문제 해결형 리빙랩 운영
웰에이징 실증 단지 구축
광주·전남 웰에이징 밸리·정주 생태계



글로벌영역

“지역 표준을 넘어 세계 표준으로”



교육·연구의 글로벌 확산
글로벌 학부 신설
유학생 유치·정주 지원
(주)SOONOWA 기술사업화·해외 진출

▼ 2025 CSU 글로벌·RISE·대학혁신 성과포럼 참석자 단체사진



지역과 함께, 웰에이징 1st G-RISE FE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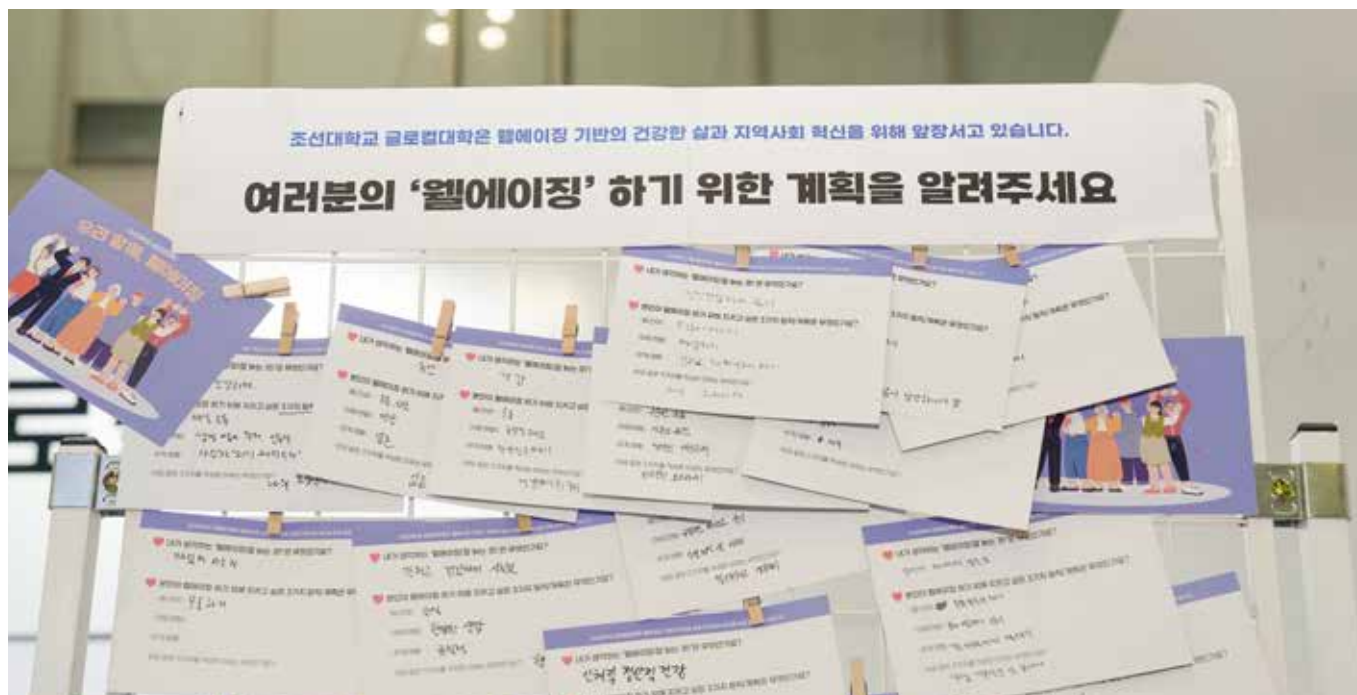


지역과 함께한 성과확산의 장

조선대학교가 광주시·지역 17개 대학이 함께한 **제1회 광주 RISE 성과공유회(G-RISE FESTA)**에 참가해 RISE사업 및 RISE 연계 사업 성과를 지역사회에 전시·공유했다. 행사는 2026년 2월 5~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조선대는 지역 산업 수요 기반 현장 중심 인재양성과 지·산·학·연 협업 성과를 소개했다. 전략산업 연계 연구, 체험형 콘텐츠,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 리빙랩 사례, 문화예술 실무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부스로 운영하고, 글로벌대학·늘봄·COSS 등 연계 사업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웰에이징 한 미래의 나의 모습은?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은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웰에이징’특성화 전략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 전면에는 교육·연구·지산학·글로벌 분야의 혁신 성과를 담은 홍보 판넬을 전시하고, 글로벌대학 비전과 추진 체계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시 송출하여 전략의 필요성과 지역 연계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AI기반 노년 이미지 변환 체험과 ‘나의 웰에이징을 위한 3가지 원칙/계획’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 관람을 넘어 노후 준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약 26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 시민들이 작성한 '나의 웰에이징을 위한 3가지 원칙/계획'

건강을 넘어 삶의 질로

부스에서 운영된 '나의 웰에이징을 위한 3가지 원칙/계획' 작성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인식하는 웰에이징의 핵심 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주요 키워드 빈도 분석에서 '운동'이 171회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체력 유지 중심의 건강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 관리, 가족관계, 배려, 소통 등 정서 및 관계 중심의 응답도 다수 나타나 웰에이징을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적 안정과 인간관계 유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사회 돌봄·심리·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시사하며, 특히 라이프케어 분야에 대한 시민 관심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AI를 통해 20대 참가자가 60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현



▶ AI를 통해 20대 참가자가 50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현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정주·취업, 한눈에 담다

지역 정주취업률 관리 대시보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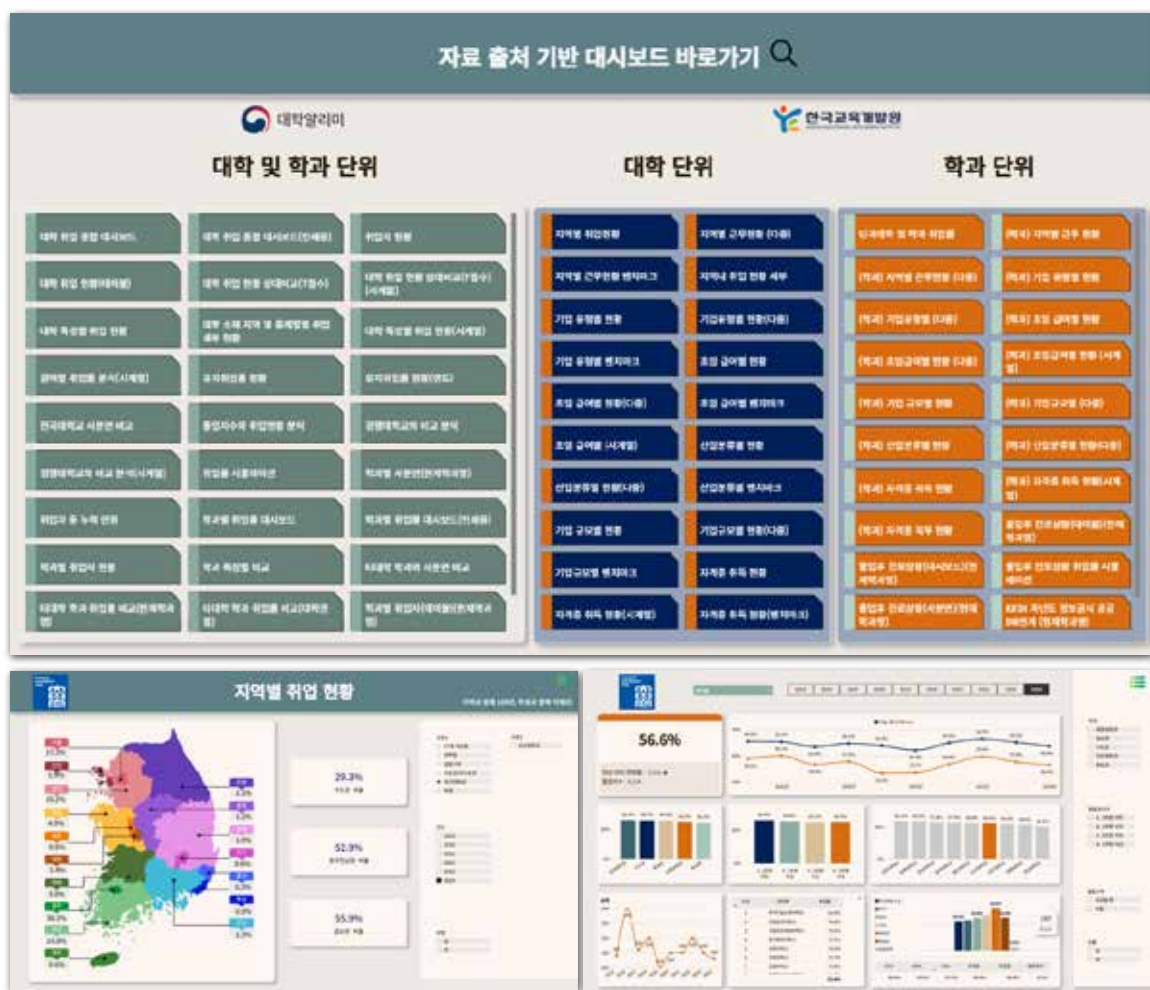
▲ 지역 정주취업률 관리 대시보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의 취업 지원은 이제 ‘취업률’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특히 웰에이징 산업은 향후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소 1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누가·어디로·어떻게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하는지를 더 촘촘하게 살펴보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기존 취업률 관리 체계는 제한된 통계와 보고서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별 취업자 현황이나 정주취업률 같은 핵심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해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조선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 10개년 취업 관련 자료와 KEDI 분석자료, 기업 DB 등 총 440개 데이터를 정제·통합하고, Power BI 기반 지역 정주취업률 관리 대시보드(84개 핵심 페이지)를 구축했다.

지역 정주취업률 관리 대시보드 주요 기능

1. 정주취업률, 대학 전체 및 연도, 단과대학, 학과별 필터 적용
2. 취업률, 유지취업률, 진학률 자동 산출



▲ 지역 정주취업을 관리 대시보드

기대효과

1. 지역 정주취업을 제고

: 대시보드로 정주·취업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광주 RISE 일자리기업 ON 플랫폼 연계를 통해 지역 정주·취업 촉진

2. 지역 인재 순환 생태계 강화

: 지역 산업 수요와 대학 성과를 데이터로 연결해 산학 협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3. 취업지원 체감도 향상

:학과·부서가 동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상담·지원의 정확도 및 학생·기업 만족도 제고

4. 공동활용 '전략 도구' 확보

: 440개 데이터 통합과 필터 분석을 기반으로, 학과/지역별 심층 분석이 가능한 실행형 관리도구 확보



이달의 핵심성과 브리핑



지역기업과 함께 만드는 웰에이징 CSU 웰에이징 Glo-Biz Club 결성식



▲ CSU 웰에이징 Glo-Biz Club 결성식 참석자 단체사진

초고령사회 속 웰에이징 산업은 지역의 삶의 질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고령친화 산업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바이오메디·에이지테크·라이프케어 분야 기업을 연계해 실증·사업화·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CSU 웰에이징 Glo-Biz Club'을 출범했으며, 2026년 1월 28일 창업보육센터에서 결성식을 열고 협업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CSU 웰에이징 Glo-Biz Club 파트너 기업

로컬 파트너: 식스볼트·(주)씨엔에스컴퍼니·(주)소프트웬스·(주)위치스·(주)커넥티드 등 54개 기업

캠퍼스 파트너: 글로소리(주)·(주)다산바이오텍·(주)메타헬스랩·(주)셀라마운트·(주)씨에스에스 등 36개 기업

기대효과

1. 기업 지원 '상시 체계' 마련

: 멤버십 기반 운영으로 기업 지원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 협력으로 전환

2.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기업-대학-유관기관 협력 지원 체계를 통해 실증-연계-사업화 과정 실행력 제고

3. 기업 경영 역량 강화

: 웰에이징 산업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

4. 상생 협업 및 시너지 창출

: 기업·교수·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웰에이징 산업 생태계의 협업 효과 제고

시니어 웰에이징 예술프로그램 '미술산책' 지역-대학 상생의 장, CSU 도시캠퍼스



▲ '미술산책' 전시 참여자 단체사진

웰에이징은 건강관리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관계, 자기표현의 회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선대학교 미술관과 광주 동구청이 공동 운영하는 'CSU 도시캠퍼스 금계리 아트센터'는 시니어 대상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미술산책'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전시로 지역사회와 공유했다.

미술 기초 이론부터 창작·감상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2025.12.16.~2026.02.03. 기간 동안 동구 거주 50세 이상 시니어 15명이 참여해 작품을 완성했으며, 성과전시회를 통해 생애 첫 전시의 감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추후 '스토리텔링·디자인 소양 결합 고급과정'의 2026년 2차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대효과

1. 시니어 웰에이징 실현

: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과 성취 경험 제공 및 정서적 웰빙 확장

2. 지역-대학 상생 도시캠퍼스 모델 강화

: 동구 웰에이징 정책과 조선대 미술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접목한 협력 모델 축적

3.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확산

: 2차 고급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 참여자 성장의 연속성 강화

4. 지역사회 소통 확대

: 전시를 매개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접점을 넓혀 공동체 기반 문화 확산으로 연결



언론이 주목한

글로벌 조선대학교



조선대병원, 임상연구정보시스템(CDW) 구축·활용 폭 확대

조선대학교병원이 임상연구정보시스템(CDW, 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을 완료하고, 완료 보고회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연구·실증 활용 방향을 공유했다. CDW는 진료·검사·처방 등 주요 임상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한 인프라이며, 권한관리·접근이력 기록·데이터 정합성 검증(QA/QC) 등 보안·운영 체계를 갖춘 시스템이다. 조선대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의료 AI·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임상데이터 활용 연구와 기술 실증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K-Health 의료 AI 생태계 사업과 조선대학교 글로벌대학 전략과 연계해 지역 대학·기업 참여 협력을 넓혀 기술 검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선대학교와 글로벌 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가 바이오·의생명 분야 연구협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본격화했다. 양 기관은 2026년 1월 12일 '웰에이징 선도를 위한 혁신·공유·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선대 연구역량과 SD바이오센서의 진단 시약·장비 및 AI 데이터 활용 기술을 결합해 공동연구와 지역 맞춤형 교육·연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SD바이오센서는 혈당측정기 1,000개를 기부해 연구·실습과 지역 건강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 지원을 더했다.



조선대-SD바이오센서, 웰에이징 선도 위해 맞손



완도군, 해조류 산업 구조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전환 집중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원물 생산 중심 구조에서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전남 바이오진흥원·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연구소·실증센터·시제품 라인 기반을 구축했으며, 협력 연구소에는 26개 기업이 입주해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조선대가 운영하는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도 유전체 등록(39건)·특허·지식재산권(37건)·시제품 개발(13건) 등의 기업 지원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대규모 시설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선대학교 관학협력센터가 2026년 1월 28일 조선대 본관 청출어룸에서 박철우 한국공학대 부총장(중앙RISE위원회 재정성과분과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웰에이징 밸리 구축을 위한 초광역 글로컬 RISE 추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대학 본부 처장단 및 글로컬사업 관계자 약 24명이 참석했다. 박 부총장은 광주·전남 초광역 웰에이징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확산과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자 교류를 통해 밸리 구축 방향을 논의하며 초광역 협력 기반 도시모델 구체화와 대학-도시 협력모델 확산을 강조했다.



조선대학교, 박철우 한국공학대 부총장초청 특강 성료



조선대, 디지털 뇌파지도 구축 본격화... 웰에이징 특성화 가속

조선대학교가 2026~2030년 '디지털 뇌 기능 표준 EEG(뇌파) 빅데이터'를 구축해 디지털 뇌파 지도와 AI 기반 예측 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의생명과학과 김정수 교수와 전자공학부 염흥기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이끌며, 뇌전증·우울증·치매 전조 인지저하·수면장애 등 4대 뇌 질환 중심의 표준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밀도·웨어러블 EEG 장비와 전자기 차폐 환경을 활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수집 데이터는 교내 AI 데이터센터에 집적해 분석에 활용한다. 또한 오픈 테스트베드 운영과 교원 창업 자회사 연계를 통해 AI 진단 알고리즘·뇌 건강 솔루션 사업화 및 산학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조선대학교가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지역 주요 대학들과 웰에이징(Well-aging)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조선대 방문단은 2026년 1월 27~31일 현지를 방문해 응우옌타탄대학, 베트남미술대학, 베트남건축대학과 협약을 맺었다. 웰에이징 교육·연구 협력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류·단·중장기 연수, 현장실습 및 산업체 연계, 성과 기반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학부를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교육·진로(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설명회·교향 프로그램·실습 매칭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대, 베트남 대학들과 웰에이징 협력 네트워크 확대



제9회 치매신경과학포럼 개최... 혈액진단·치료·AI 성과 공유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과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이 2026년 2월 6~8일 제9회 치매신경과학포럼(NFAD)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혈액 진단·혁신 치료·AI’ 융합을 주제로 임상의·

뇌신경과학자·의공학자·산업계 등 220여 명이 참석해 조기 예측과 발병 억제, 기술 실용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단은 13년간 60세 이상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밀의료검사와 10년 이상 장기추적 데이터를 구축해 왔으며, 해당 성과가 디지털헬스케어 R&D 및 한국형 ARPA-H 등 국책과제로 확장돼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노인성 뇌질환 AI 닥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실증·임상시험 기간 단축과 상용화 가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1월 28일 1차 세미나에 이어 2월 11일 광남일보 연회장에서 ‘지역기업 HR 담당자 협업 체계 구축 세미나(2차)’를 열어 대학-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정주 취업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2차 행사에는 GGM·현대하이텍·해양에너지·세방전지 등 지역 기업 HR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을 통해 글로벌 대학-지역기업 협업 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했다.

조선대·광주경총, 지역기업 HR 협업 세미나 통한 정주형 취업 선순환 추진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대학

⋮

**CSU
GLOCAL
LETTER**

csu GLOCAL LETTER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